

# 교사는 교과서 배달, 학부모는 마스크 배부

### '4월 개학' 맞은 광주·전남 교육현장 학생 건강·생활 챙기기 온라인 통해 신입생 얼굴 익히고 대학들은 심리상담 등 소통

'코로나19'로 개학이 세 차례나 연기되면서 '4월 개학'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는 지역 교육현장 곳곳에서 학생들을 위한 배려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어촌 교사들은 배를 타고 먼 길을 가 새 학기 교과서를 아이들의 집에 직접 전해주는가 하면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아이들 학습과 건강, 생활지도를 챙기느라 바쁘고 긴장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여수 금오도 여남중교 교사들은 지난 18일 두 팀으로 나눠 아이들이 사는 섬으로 배를 타고 가 정성껏 보자기에 싼 책을 나눠주고, 육지에 사는 아이들을 위해선 직접 여수로 나가 세심한 생활지도도 펼쳤다.

진도 고성중은 화상 학습조회를 열어 비록 온라인상이지만,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소통하는 방식으로 생활지도에 나서고 있

다. 입학식이 미뤄져 아직 선생님과 친구들의 얼굴조차 모르는 1학년 신입생들은 온라인을 통해 미리 얼굴을 익히며 낯선 중학교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다.

목포 서부유치원은 아직 등원하지 못하는 원생들과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유치원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교실과 꽃밭·교사 사진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학부모들에게 보내줬다. 아이들과 함께 읽으면 좋은 책도 문자로 안내해 교육공백 해소에 힘을 보태고 있다.

광주지역 교사들도 학생들을 찾아가 면담하고 교과서를 직접 전달하는 등 개별 접촉으로 안면 트기에 나섰다.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학교 밖에서도 학생들을 한데 모을 수 없는 상황을 고려, 학생들과 개별 면담을 시도하는 교사들이 늘어

고 있다.

이 밖에도 가가호호 비대면 방문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학습상담 콜센터·온라인교실을 운영하는 등 지역 곳곳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따뜻한 교육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학부모들도 개학 후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줄 마스크를 직접 만드는 등 위기 극복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함평학부모연합회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개학할 때 1인1매의 마스크를 보유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모금과 함께 지난 19일부터 수제 면 마스크 제작에 직접 뛰어들었다. 학부모들은 재봉질과 마스크 패터 뜨기, 필터 삽입 등의 기술을 배운 뒤 재료를 구해서 분업과 협력을 통해 마스크를 손수 만들고 있다.

대학들 역시 신입생을 대상으로 등교인기 장기에 따른 불안감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등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호남대는 신입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

기 위해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심리상담 프로그램인 '호남마음콜'을 운영한다. 호남대는 전문상담사 10명을 배치하고 8단계 상담 매뉴얼에 따라 신입생 심리상태를 체크하도록 했다. 1차 상담에서 우울증 등으로 정신건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과는 2차 상담을 이어가고,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센터 등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광주대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의 교수와 학생회 임원들도 코로나 사태로 열리지 못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을 대신해 신입생들과의 소통을 위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시행해 호응을 얻었다. 이번 유튜브 방송은 류정희 학과장과 김동진 교수, 윤재호 학생회장 등이 참여해 교수·학생회 소개, 소모임과 연구회 등 대학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실시간 채팅으로 알려주고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2 해질 18:47 달뜨기 06:14 달질 17:43

포근한 오후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광주	맑음	4/18	보성	맑음	3/17
목포	맑음	4/13	순천	맑음	7/19
여수	맑음	8/18	영광	맑음	2/15
나주	맑음	2/18	진도	맑음	5/14
완도	맑음	7/18	전주	맑음	3/17
구례	맑음	3/19	군산	맑음	3/15
강진	맑음	4/18	남원	맑음	1/17
해남	맑음	3/17	흑산도	맑음	7/15
장성	맑음	2/17			

### ◇ 바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남부	안바다	북서~북	0.5	서~북서	0.5
	면바다(북)	서~북서	0.5~1.0	서~북서	0.5~1.0
	면바다(남)	서~북서	0.5~1.5	서~북서	0.5~1.0
남해서부	안바다	북서~북	0.5~1.0	서~북서	0.5
	면바다(서)	북서~북	1.0~2.0	서~북서	0.5~1.5
	면바다(동)	북서~북	0.5~1.5	서~북서	0.5~1.0

### ◇ 생활지수

감기	보통
뇌졸중	보통
미세먼지	보통

### ◇ 물때

지역	간조	만조
	시간	시간
목포	07:03	01:44
	19:31	14:17
여수	02:36	09:05
	15:02	21:07

### ◇ 주간 날씨

날짜	24(화)	25(수)	26(목)	27(금)	28(토)	29(일)	30(월)
날씨	☀	☁	☁	☁	☁	☁	☁
기온	4/20	7/21	11/18	13/17	6/13	4/15	5/16

### 코로나19 휴관 장기화 광주 6개 공공도서관 주간예약대출서비스

광주시교육청 산하 6개 공공도서관이 코로나19 여파로 공공도서관의 임시휴관이 장기화에 따라 23일부터 주간예약대출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주간예약대출서비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 예약한 책을 지정장소에서 대출하고, 무인반납기를 통해 반납하는 서비스다.

책이름 회원(정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1인 5권까지 최대 3주 동안 대출이 가능하다.

통합홈페이지 로그인 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간예약대출서비스로 책을 신청하고, 다음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각 도서관이 지정된 장소에서 책임회원증과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후 수령할 수 있다.

가족회원의 경우 대리수령이 가능하고 서비스기간 내 신청은 매일(월~일요일) 가능하다. 단 도서수령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이며, 다음날 미수령시(토·일요일 신청한 경우 월요일 수령) 예약 도서는 자동 취소된다.

/김대성 기자 bigkim@



마스크 쓰고 벚꽃 구경  
낮 최고기온이 20도를 웃도는 완연한 봄날씨를 보이자 22일 광주시 동구 서석동 도로변의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전남교육청 을 교사 해외연수 모두 취소

전남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선제적 조치로 올해 교직원 국외연수를 모두 취소한다고 22일 밝혔다.

국외여행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집체일로를 걷고 있는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예정된 국외연수를 취소하고 대신 이를 국내연수로 변경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9일자로 산하 기관과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했다.

올해 도교육청 본청 등이 주관할 예정이던 교직원(공무직원 포함) 대상 국외연수

는 업무추진 상 필수적인 공무출장(협력기관 방문 등)을 제외하고는 전면 취소 혹은 국내연수로 전환된다. 공무출장도 하반기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신중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와 지자체 등 다른 기관이 주관하는 국외연수에 개별 교직원들의 참여 여부도 기관장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인권상에 인도네시아 인권활동가 벵조 운통

#### 수하르토 군사독재정권 저항

올해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인도네시아 인권활동가 벵조 운통(72-Bedjo Untung·사진) 씨가 선정됐다.

5·18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위원장 문규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는 지난 20일 5·18기념재단에서 광주인권상 수상자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벵조 운통(Bedjo Untung) 씨를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1965~1966년 고등학생이던 벵조 운통씨는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군사독재정권이 좌익청산을 구실로 자행한 대학살을 목격하고, 독재에 저항하며 자신이 겪은 사건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투쟁의 길로 뛰어 들었다.

정치범으로 독재정권의 수배자가 된 그는 1970년 인도네시아 군사정보국에 붙잡혀 전기고문 등 갖은 고초를 겪으며 서 10년 동안 구금됐다. 1979년 10월 24일 국제사회의 관심으로 석방됐지만, 이후에도 정치범의 코드가 기입된 신분증을 소지해야 했고 모든 이동경로를 군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등 끝없는 사회

적 구금과 박해에 고통 받았다

1999년 4월7일 자신이 목격한 대학살의 진실을 알리고자한 벵조 운통씨는 동료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1965/66 학살 연구소'(YPKP65)를 설립했다. 이후 인도네시아 전역을 누비며 피해자들의 진상조사를 진행해 집단 무덤을 찾아냈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피해 보상과 지원을 정부에 요구하는 활동을 펼친 결과 인도네시아 헌법에 의해 피해자 지원을 보장받게 됐다. 2015년에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국제재판의 증인으로 참석했고, 이 재판에서 1965~1966년 인도네시아 대학살이 공식 인정될 수 있었다.

매년 5월18일 광주인권상을 수여하고 있는 광주인권상은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돼 10월에 진행될 예정이며, 광주인권상 수상자에게 상패와 시상금 5만 달러를 수여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힘내세요

남원시민 여러분! 의로운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이길수 있습니다

남원시의회가 응원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남원시의회  
Namwon City Council